

朱熹와 연단술: 『周易參同契考異』의 내용과 성격

신 동원 (한국과학기술원)

Juhee and Dan training :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I-Chingchamdonggyegoi』

Shin Dong-won

Started to get over the political difficulties, Juhee put his heart into solving the mystery of 『I-Chingchamdonggye』, and the final answer he got was right this. In his coordinate ideology system, he positioned 『I-Chingchamdonggye』, in other word Dan. No, actually he reconfirmed the uprightness of his ideology system through 『I-Chingchamdonggye』 and Dan. Justness of Juhee's scholarship which was accused to be false study is ascertained even in trifling Dan and the classics of Dan. The fruit seems to be 『I-Chingchamdonggyegoi』.

1. 머리말

『周易參同契』는 서기 2세기 東漢 때 사람인 魏伯陽이 쓴 책이다. 이 책은 煉丹의 이론을 易을 빌어 체계화 한 점에서 이 책은 이전의 煉丹術書와 뚜렷이 구별된다. 이 책은 納甲說, 十二消息之說 등 한대의 易을 빌어 煉丹의 원리를 매우 훌륭하게 체계화 했기 때문에 송대이후 연단술 경전의 으뜸으로 취급되어 “만가지 옛 丹經 중의 으뜸”¹⁾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萬丹經의 으뜸”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주역참동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1) 高光 撰, “金丹歌”.(方春陽 主編, 『中國氣功大成』, 吉林科學出版社, 1989, 497쪽)

달았다. 宋代에 나온 鄭樵의 『通志略』은 『주역참동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한 최초의 책인데, 여기에는 陰長生을 가탁한 唐代的 『周易參同契註』, 五代 蜀 彭曉(字 守川, 號 眞一子)의 『周易參同契通眞義』 등을 포함한 19部 31권의 『주역참동계』의 주석본의 책이름이 적혀 있다.²⁾

주희가 쓴 『주역참동계고이』도 이와같은 『주역참동계』 주석본 중의 하나일 뿐이다.³⁾ 그런데, 주희의 주석은 출간 이후부터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유학의 종조로 존경을 받고 있던 주희라는 인물이 주석을 달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만큼 도교적 풍취가 물끔 풍기고 있는 연단술의 내용을 담은 『주역참동계』라는 책에, 평상시 도교를 맹렬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방기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던 주희가 주석을 달았다는 사실은 크게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아도 이는 매우 놀랄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주희의 이 “놀랄만한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또한 놀랄만한 일이다. “유학의 종조”인 주희가 어떤 계기로 해서 “도교 丹經 중의 으뜸”인 『주역참동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어떠한 동기로 이 책에 주석을 달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일러 주는 연구는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주희가 『주역참동계』의 연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⁴⁾

2) 『참동계』類의 書目을 최초로 기재한 것이 鄭樵의 『通志略』이다. 여기에는 『참동계』에 대한 19개의 서 목이 담겨 있다.

3) 『주역참동계고이』는 1197년(宋 慶元 3년)에 주희가 저술하였다. 이 사실은 『주역참동계고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주역참동계고이』에는 직접적인 저자의 이름과 刊記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희가 이 책을 썼음은, 『주역참동계고이』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주희의 문집 안의 내용과 『朱子語類』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저술연도와 저작자 이름은 주자의 문집인 『朱子全書』의 부록으로 실린 연보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역참동계고이』의 판본의 종류는 크게 1권 본과 3권 본으로 나뉜다. “1권 본으로 『朱子遺書』 본, 『四庫全書』 본, 『守山閣叢書』 본, 清道光間浙江刻本, 『叢書集成』 본, 『四部備要』 본 등이 있으며, 3권 본으로는 『道藏』 본, 『紛欣閣叢書』 본, 『道藏學要』 본이 있다. 1권 본과 3권 본은 권 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내용은 같다. 한편, 오늘날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판본은 元 때 찍은 『朱子成書』 본으로 [그 사실이] 『增訂四庫簡明目録標注』에 실려 있다. 이는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道藏』 본, 『四庫全書』 본, 『四部備要』 본 등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주역참동계고이』는 모두 後學 黃瑞節의 부록이 붙어 있는 것이다. 黃瑞節은 “南宋 말기 象數學에 능한 유학자”로 주희의 語錄, 文集 등에서 『주역참동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가려 뽑아 해당되는 곳에 덧붙여 실어 놓았다. 아울러 주희의 해석에서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따라서 『주역참동계고이』는 魏伯陽이 쓴 『참동계』의 본문, 이에 대한 朱熹의 주, 黃瑞節이 문집 등에서 뽑아 실은 내용, 黃瑞節이 제시한 견해 등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은 『주역참동계고이』라는 텍스트의 상세한 고찰을 주로 하고 문집 등의 방증적인 자료의 도움을 바탕으로 하여 주희의 『주역참동계』에 대한 관심과 『주역참동계고이』의 저술 동기를 밝혀내는 한편, 주희의 『주역참동계』의 연단에 대한 태도를 살피고자 한다.

2. 『주역참동계고이』 출간의 난점과 해결

『주역참동계』는 도교적 풍취가 짙게 풍기는 연단이라는 “방술”을 다룬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책이 유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었다 해도 “유학의 종조”이면서 평시 도교를 맹비난했던 주희가 그것의 주석서를 公刊함에는 결끄러운 점이 있었다. 즉 “『주역참동계』라는 책이 이미 巨儒의 반열에 올라선 주희라는 인물이 주석을 달만한 가치를 지닌 책인가”, “도교와 方技의 경전으로 알려진 煉丹術書에 주희같은 유학자가 주석을 달아도 되는 것인가”하는 의문, 또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주희는 한편으로는 『참동계』가 선대의 유학자도 큰 관심을 끌만큼 유학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주석을 달기는 했지만 『참동계』가 다른 유학서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우선 주희는 그보다 약간 앞서 살았던 선유 邵雍(1011-1077. 字 堯夫. 諡號 康節)이 『참동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邵雍의 先天圖(希夷之學)의 유래를 『참동계』에서 찾았다. 다음 구절을 보자.

아마도 希夷之學은 어느 정도 伯陽 『참동계』에서 유래된 것일게다. 先天圖와 [참동계의] 納音이 서로 應하는 바 蔡季通이 말하기를 『참동계』와 부합된다고 한다...邵子は 先天圖를 발명하였는데, 이 그림은 希夷로 부터 전해받은 것이고 希夷는 또한 스스로 전해받은 바 있었으니, 대체로 方士, 技術이 修養으로써 쓰던 것이다. 『참동계』에서 말한 바가 그것이다.⁵⁾

4) 吾妻重二의 “周易參同契考異のついて”(『日本中國學會報』 第36集, 1984. pp.175-90)라는 논문 한편만이 주희가 주석을 달 동기와 주희의 주석에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의 저술 동기를 주희 만년의 병고와 그의 호흡법에 대한 호의, 또는 경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와 다르다.

5) 四庫全書本 『周易參同契考異』, 3a쪽. 이하 『周易參同契考異』의 인용은 모두 이 책에 따른다. 이하 『考異』라 略함.

이 언급으로부터, 주희가 당시의 先天圖의 뿌리를 한대의 魏伯陽의 『참동계』에서 찾고 있음과 그것이 유학의 발전에 결코 범상치 않은 希夷와 邵雍을 통하여 전수, 계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이 方技인 煉丹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참동계』는 유학의 한 뿌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先天圖의 원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업수가 취급될 수는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한 당대의 邵雍같은 대학자가 주목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서 주희는 『참동계』라는 책에 자신만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책이 유학의 발전에도 일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비록 선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참동계』 일부분이 유학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지닌다 할지라도, 『참동계』에는 주희가 일생동안 맹렬히 공격했던 異端인 도교적 성격이 깊게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참동계』 주석본 출간에는 절끄러운 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난점에 직면하여 주희는 『참동계』에 대한 자신의 주석 출간을 자신의 다른 저작과 형태를 달리 차별화 함으로써 어느 정도 난점을 피하고자 한 듯하다. 空洞道士 鄒晰이라는 假名의 사용과 註釋보다는 校正의 느낌을 주는 “考異”라는 책제목의 선택이 이 차별화를 뒷받침해준다.

『주역참동계고이』를 언뜻 보아서는 그 저작자가 주희라는 것을 읽어내기는 힘드나, 주희가 여러 사람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가 주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空洞道士 鄒晰이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이로부터 주희라는 글자를 끌어낼 수가 있다. 『주역참동계고이』의 부록을 붙인 黃瑞節은 鄒晰을 다음과 같이 풀었다.

鄒晰이란 두글자를 살펴 보니, 朱자가 이를 빌어서 이름을 가탁한 것이다. 鄒란 본래 春秋 邾자의 나라를 가리킨다. 樂記에 “天地昕晷”이라 되어 있는 데 鄭氏(鄭玄-필자)가 주를 달아 이르기를, “흔이란 마땅히 熹라고 써야한다”고 하였다.⁶⁾

한편, 추흔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空洞이라는 단어로부터도 주희의 관련성을 헤아릴 수 있다. “텅 빈 곳” 또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空洞”에 대해 주희는 空洞賦 등의 글을 통해 여러 차례 관심을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이다.⁷⁾

6)위의 책, 讚序 2a쪽.

7)陳榮捷, 『朱子新探索』, 臺灣學生書局, 1989. 38쪽.

이상에서 주희는 『참동계』 주석본에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이 주석했음을 은폐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주희가 『참동계』에 대한 주석이 자신의 본명을 박은 四書 五經 등에 대한 주석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희는 정통 儒家書에는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여 선유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밝힌 반면, 『참동계』같은 方術書에는 자신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그 책이 儒家書와 같지 않음을 보이는 동시에 자기 이름의 훼손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석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考異”라는 책제목을 선택한 것도 가명의 사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인다. “考異”라는 말의 사용은, 그가 참동계에 단 “注”가 원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原典의 자잘못만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다는 느낌을 풍기게 해준다. 이로부터 주희가 자신이 『참동계』에 주를 단 행위가 문자의 교열과 비슷한 차원으로 생각하였음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고 책제목을 완화하여 책을 출간하였다고 해서 주희가 후대의 유학자들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왔던 것은 아니다. 후대의 유학자인 黃震, 胡居仁, 詹陵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희의 『참동계』 주석행위는 이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⁸⁾ 특히 明의 침陵은 그의 『異端辨正』에서 주희의 儒者로서의 순수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⁹⁾ 이렇듯 가명을 쓰고 책 제목을 완화해서 『주역참동계고이』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거꾸로 주희가 책을 출간할 때 얼마만큼 깊이 사려해야 했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空洞道士 鄒흔이라는 도교적 느낌이 드는 가상의 인물을 빌어 『고이』라는 제목으로 『참동계』 주석본을 낸 것은 바로 이같은 비난의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주희가 『주역참동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2절에서 살핀 주희의 『주역참동계』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약하면, 그 책은 유학경전만큼 추앙될 정도의 책은 아니나 유학의 내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을 지닌

8) 吾妻重二, 앞의 글, 175쪽 참조.

9) 위와 같은 곳.

책이라는 것이었다. 『周易參同契考異』라는 책제목에 空洞道士 鄒訥이라는 가명의 사용은 전자를 말해주며, 邵雍의 先天圖가 이책에서 유래했음을 강조하는 언급은 후자를 일러준다. 요컨대, 분명한 사실은 주희가 다른 유교경전만큼 이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희의 일관성 있는 학문관심을 헤아릴 때, 『주역참동계』 주석작업이 결코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주희가 만년에 다른 일을 물리치고 하필이면 『주역참동계』에 심취해서 주석본을 출간하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주희가 만년에 『주역참동계』에 관심을 가져 열중하게 되어 드디어는 주석본까지 내게 된 주된 동기를 『참동계』의 탈속적 성격과 수수께끼적 내용에서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주희는 만년에 그의 사상과 관련된 정치적 박해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동계』는 이같은 그의 상황을 달래주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탈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참동계』란 책이 그 운률이 옛스럽고 우아하면서도 내용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어서 주희의 지적 호기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packed 있었기 때문이다.

주희 자신은 만년에 참동계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참동계』의 탈속성에서 찾았다.

『참동계』는 이제 빠진 부분도 없고 또한 더이상 심력을 다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좋은 날을 바라며 劉安의 닭이나 개가 될 뿐이다.¹⁰⁾

劉安은 『淮南子』를 쓴 漢 때의 淮南王 劉安으로, 그의 책 『淮南子』에는 신선불로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주희가 스스로 “劉安의 닭, 개가 된다”고 말한 것을 잘 음미해보면, 그가 신선방술에 가탁하여 세상의 복잡한 일을 잊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희는 참동계에 몰두하여 “다만 좋은 날만을” 기다리고자 한 것이다. 이같이 “좋은 날을 기다리며” 『주역참동계』에 심취해 있었던 주희의 태도에 대해서 『四庫全書』本 『참동계고이』에 提要를 쓴 清代의 陸費瑞 등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하였다.

文集에 또 蔡季通에게 답하기를 “『참동계』는 이제 빠진 부분도 없고 더이상 마음에思量하여 얻을 것도 없다. 다만 좋은 날을 바라면서 劉安의 닭, 개가 될 뿐이다”라 운운했으니 대체로 난세를 만나서 부득이하게 諸神仙에 의탁한 것이다. 이는 韓愈가 趙州에 유배를 당했을 때 大顛을 맞이하여 같이 놀던 뜻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黃瑞節이 부록에서 “스승과 제자가 세

10) 『書蔡季通』, 『朱子大全』續集 卷三, 3b쪽.

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 감정을 크게 느낄 수 있다.¹¹⁾

이글에서처럼 이들은 주희와 蔡季通에 대한 『참동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한유가 신선에 가탁하여 난세를 회피하고자 했던 똑같은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희가 만년에 만난 난세는 “僞學의 難”을 가리킨다. 위학의 난이란, 주희의 정적들이 주희 등의 학문을 가짜 학문으로 몰아치면서 그들을 박해한 정치적 사건을 말하는데, 급기야는 주희와 함께 참동계를 열띠게 논의하였던 蔡季通을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놓았다. 박해가 차츰 피부로 느껴져 올 때,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직접 몸을 맞닿아 싸우는 것¹²⁾, 아니면 난의 소용돌이가 비껴나갈 때까지 참는 두 방법 중 하나였다. 결국, 주희와 蔡季通은 한갓 시끄러운 정치사를 우주와 장생에 대한 논의를 하며 비끼고자 하였다. 정부에서 蔡季通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주희와 蔡季通 사이의 『참동계』에 대한 숙연하고도 열띤 논의는 이를 잘 전해준다.

郡縣이 元定(곧, 蔡季通:필자)을 체포함이 매우 급해져도 元定은 꿈쩍도 안했다. 이미 선생을 따라 일찌기 백 여인과 이별의 모임을 淨安寺에서 가졌다. 方丈에 앉아서 거울 별외에 아무런 탄식도 수고스러운 말도 없었다. 좌객이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으나 선생이 元定을 보기를 평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朋友가 서로 아끼는 정과 季通의 꺾이지 않는 뜻 가히 둘 모두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다음날 홀로 元定과 함께 寒泉에서 會宿하여 서로 『참동계』를 정정하기를 잠을 자지 않고 하였다.¹³⁾

도대체 참동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에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을 그책에 몰두하도록 했을까?

주희가 『주역참동계』를 읽고 그 뜻을 파악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것은 『주역참동계』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魏伯陽이 『참동계』의 본문에서 “煉丹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여길까 두려워 하여 天機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秘辭體로 『참동계』를 썼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에 걸맞게 『참동계』는 그 본 뜻을 읽어내기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¹⁴⁾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기는 해도 『참동계』

11)四庫全書, 『周易參同契考異提要』.

12)주희가 만년에 처한 상황은, 三浦國雄, 『朱子』(講談社, 1979) 237-49쪽에 잘 나타나 있다. 주희는 탄압이 심해지자. 맞서 싸울 생각을 했다. 그러나 주역 점괘를 뽑아 보니, “遯”괘가 나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한다.(朱子大全 附錄 卷六 28b쪽.)

13)『朱子大全』附錄 卷六 32a,b쪽

14)『考異』 20a,b쪽.

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참동계』 내용에는 이같은 내용의 암시, 또한 실려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이는 妙術이구나! 깊이 헤아려 보니 헛된 말이 아니다. 德代 후까지 전해질지니! 밝아서 살필 수 있도다. 빛남이 은하수갈도다! 넉넉함이 水宗海갈다. 생각을 힘써 묵히도다! 반복하니 위 아래가 보인다. 천번 읽으니 빛나도다! 만 번 읽으니 눈으로 볼 수 있도다. 신명스러움이 사람에게 알리도다! 혼령이 스스로 깨치도다. 단서를 살피니 처음이 보이도다! 반드시 그 門戶를 얻으니. 하늘의 도가 알맞지 않음이 없도다! 늘 賢者와 더불어 전하도다.¹⁵⁾

윗 글은 참동계가 비록 어렵더라도 열심히 탐구하면, 그 도가 반드시 드러남을 일러 주고 있다. “어렵기는 해도 풀 수 있는 것”, 이는 웬만한 지식인이라면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 아닐까? 특히 옛스럽고 우아한 문체까지 곁들여 있으면 더 그러할 것이다.

『주역참동계』는 어렵게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주희가 참동계의 내용을 하나 하나 이해하고 해석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지난했다. 그 과정은, 의심나는 곳에 대해 蔡季通의 의견을 묻는 서신을 통해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納甲의 說에서 屯, 蒙 모두 上下卦를 써서 처음을 이루니 어찌된 것인가?”¹⁶⁾, “卦氣, 消息이란 것은 아직 알지 못하겠다. 다행히 一哥가 그것을 취해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또 읽어 기틀을 파악한 후에 말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 조목은 더욱 기이하니 대체로 지난 번 이 대강(體)[의 논의]가 없었음을 역시 안타까와 하노라. 그 설을 궁구할 수 없다”¹⁷⁾ 따위의 언급은 『주역참동계』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納甲說과 卦氣說, 十二消息之說 등의 易理에 대해 주희가 어려워 하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주희는 『참동계』에 담긴 卦氣說, 十二消息之說 등의 난제들을 거의 해결했다고 확신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를 말해준다. “熹가 연일 『참동』을 읽어 자못 “千周萬遍”이 헛된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단, 이전에 面叩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번에 가려 뽑아 한 책으로 만들었다”¹⁸⁾, “『참동』 2책과 鍾乳 1兩을 들여 考異하였으나 熹가 어찌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단지 글의 뜻과 음읽기 가운데 상량할 군데가 있을 뿐일게다”¹⁹⁾, “丹經은

15)위와 같은 곳.

16)「書蔡季通」, 『朱子大全』續集 卷二, 5a쪽.

17)「書蔡季通」, 『朱子大全』卷四四, 19a쪽.

18)「書蔡季通」, 『朱子大全』續集 卷四四, 18b, 19a쪽.

심히 번잡해서 교정을 보았는데, 아직도 한 두군데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²⁰⁾ 따위의 언급이 그 예이다. 그리하여 주희는 “董遇가 이르기를 천번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거듭 생각한다. 생각해서 통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장차 가르쳐 줄 것이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극이다. 헛된 말이 아니다”²¹⁾라 하면서 자신이 “정신의 극을 다할 정도”로 애써서 그 어려운 『참동계』의 내용을 알아냈음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주희의 참동계의 몰두과정을 그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하여 보면, 주희가 참동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 즉, “僞學의 亂”, 곧 朱子 학파의 사회관 때문에 비롯된 정적들의 모함과 위해를 맞이한 주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易理와 煉丹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참동계』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면서 잊고자 했던 주희 만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4. 煉丹에 대한 주희의 해석

정치적 난경에 처해서 『참동계』에 담겨 있는 易理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수께끼 풀이에 주희가 열중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제 “丹”의 연성과정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가 관심을 지녔던 연단의 부분도 자신의 사상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곧 주희는 “丹”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음양 등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內丹”이었으며, 또한 “丹의 생성”은 그의 心學과도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주희가 『참동계』의 丹의 구체적인 수련과정의 내용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은 『주역참동계고이』의 연단 부분에 대한 주를 훑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주희가 『참동계』에 주석을 단 부분은 전부 62곳인데, 이 중 煉丹에 관한 것이 36곳으로 수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대부분이 텍스트 내의 전후맥락으로 겨우 뜻을 지시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중에 12곳이 “이 부분은 상세히 모르겠다”²²⁾,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다”²³⁾, “이 아래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²⁴⁾, “해

19) 『書蔡季通』, 『朱子大全』 卷四四, 8a쪽.

20) 『書蔡季通』, 『朱子大全』 續集 卷二, 5b쪽.

21) 『考異』 37a쪽.

22) 『考異』 6a쪽.

23) 『考異』 21b쪽.

24) 『考異』 13b쪽.

석할 수 없다”²⁵⁾ 등의 표현을 달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모두 주희가 煉丹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잘 몰랐거나 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丹 형성의 세부적인 프로세스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²⁶⁾, 주희는 丹 형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주희는 丹의 형성이 陰陽의 신묘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동계』의 “雄陽이 玄施를 베풀고, 滋陰이 黃胞로 化한다”²⁷⁾라는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것은 모두 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²⁸⁾ 명확히 주를 달았다. 이같은 단정은 『朱子語類』에 더욱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데, “『참동계』에서 말한바 「坎離, 水火, 龍虎, 鉛汞」 등의 屬은 단지 서로 이름만 바꿔 부른 것이니, 실제로 이는 精氣 둘일 뿐이다. 精은 水이고, 坎이고, 龍이고, 汞이다. 氣는 火이고, 離이고, 虎이고 鉛이다. 그 법은 精氣를 신묘하게 運行, 결합하여 丹을 만드는 것이다. 陽氣는 아래에 있어 처음에는 水를 이루는데, 火로써 煉成하면 곧 뭉쳐져 丹을 이룬다”²⁹⁾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 구절은 『참동계』에서 丹의 생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말하는 “坎離, 水火, 龍虎, 鉛汞” 등의 서로 다른 표현이 모두 “陰陽”과 “精氣”의 다른 표현에 불과함을 강조한 것이다.

“丹의 생성이 음양의 조화에 의한다”고 『참동계』에 주석을 단 데서 보이듯이 주희는 “丹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주희에 따르면, “안과 밖의 색이 서로 다른, 오리알같이 생긴” 丹에 대한 “說이 매우 이상한 것”이기는 했지만, “참된 방법을 쓴다면 그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³⁰⁾ 여기서 “참된 방법”이란, 陰陽, 곧 精氣의 “신묘한 작용”을 부리는 것을 가리킨다.³¹⁾ “丹 존재의 인정”, “그 생성의 합리적 설명” 등에 나타난 주희의 태도는 신선, 무지개 등 이상현상을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그의 학문태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25) 『考異』 16a쪽.

26) 물론, 주희는 陰陽의 신묘한 작용으로 丹이 생긴다는 일반 원리 뿐만 아니라 그것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다. 그 과정은 다음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것은 첫째, 몸안에서 陰陽 두기의 작용에 의해 “液體의 상태가 되었다 영겨 黃輿가 생기는 과정이다. 둘째는, 이 黃輿가 몸밖에 나가 “미세한 먼지와 같은 재가 되는 과정”이다. 세째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것을 서로 두드려 다스려서 몸안으로 들여서 還丹을 만드는 과정”이다. 주희는 이를 각각 “丹의 제1변환”, “丹의 제2변환”, “丹의 제3변환”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였다. 이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주희는 이보다 더 나아가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문맥으로 살필 때 이 부분이 “丹” 생성의 과정을 나타낸 곳이라 이해한 데 불과했을 뿐이다.

27) 『考異』 9b쪽.

28) 위와 같은 곳.

29) 「參同契」, 『朱子語類』 卷 一百二十五, 中華書局, 3002쪽.

30) 『朱子語類』, 위와 같은 곳.

31) 『考異』 5a쪽.

주희의 합리성을 생각할 때, 그가 外丹을 인정하기 힘들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희는 『참동계』의 丹이 外丹인지 內丹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彭曉와 달리 그것이 內丹임을 분명히 했다. 이 사실은 『주역참동계고이』에서 주희가 쓴 外丹, 內丹이라는 말이 쓰인 맥락으로부터 밝힐 수 있다. 주희는 外丹이라는 말을 세 번, 內丹이라는 말을 한 번 사용하였는데, 外丹이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諸石의 방법을 쓴 경우를 가리키며, 그중 2번은 外丹의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內丹이란 말은 丹의 인체내의 긍정적인 효용과 관련되어서 한 차례 나타난다.

외단에 대해 주희는, “이는 外丹을 쓰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약이 같은 류가 아니면 寶(丹)를 만들 수 없다³²⁾”; “그 이치를 얻지 못하고 널리 명약을 구하는 것은 外丹을 하는 것이다...이를테면 전편에서 말한 ‘八石正綱紀’ 따위가 그것이다”³³⁾; “毒藥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黃牙가 姪女를 제압한다는 비유이다. 外丹이란 丹砂를 말하는데, 이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자세히 살필 수 없다”³⁴⁾라 하여 ‘八石’ 따위의 諸石을 外丹이라 못박으면서 그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고 주석하는 한편, 독약을 外丹이라는 말로 등치시켜 외단은 “해로운 것”이라 단정지었다. 한편 內丹에 대해서는, 참동계의 “還丹이 입안으로 들어가면 金성이 썩지 않으니 만물의 보배가 되는 것이다. 術士가 그것을 복식하면 수명이 장구하게 된다”는 구절을 “內丹”이라 풀었는데³⁵⁾, 이로부터 內丹이 진정한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주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丹이 陰陽, 精氣의 신묘한 작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주희의 태도를 보였으며, 『참동계』에서 말하는 丹을 주희가 내단으로 생각했음을 살폈다. 여기에 덧붙여 丹에 대한 주희의 주목할만한 특징을 한가지 더 들여본다면, 그것은 그가 丹 해석에서 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는 주희가 『참동계』의 “陰陽의 道를 덮어쓴 것은 마치 工人이 줄과 먹을 든 고르고 마부가 채찍과 재갈을 잡고 수레길을 쫓는 것과 같은데, 가운데에 있으면서 바깥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³⁶⁾ 라는 내용에 대해 “이는 心이 陰陽을 다스려서 수레바퀴를 돌려 丹을 만들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재갈과 채찍은 陰陽을 부리는 것을 이룬 것이고, 줄과 먹은 화후를 말한 것이다. 수레길이란 오르내리는 것이 말미암는 것을 말한다. 가운데란 心을, 바깥이란 氣를 말한다”³⁷⁾라 주석한 데서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다. 여기서 주희는 “心이

32) 『考異』 19ab쪽.

33) 『考異』 30a,b쪽.

34) 『考異』 31b쪽.

35) 『考異』 18a,b쪽.

36) 『考異』 5a쪽.

陰陽의 氣를 능히 조절하여” 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丹형성에 心이 중요하다는 주희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참동계』의 본문에 단 주석으로부터도 헤아릴 수 있다.

黃土는 金의 어비가 되고, 流珠는 水의 어미가 된다. 水는 土를 鬼로 삼으니, 土는 水를 다스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朱雀은 火의 精이 되어 平衡을 잡아 勝과 負를 다스린다. 水가 勝하니 火가 소멸하여 모두 죽어 厚土로 돌아간다. 三性이 모두 만나 합쳐졌으니, 本性이 宗祖와 같이 한다.³⁸⁾

이 내용 중 水, 火에 대한 土의 역할에 대해 주희는 “土는 脾에 속하는데, 脾는 意를 主하니, 意로써 火를 아래하고 水를 위로 하여 서로 호흡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³⁹⁾라 주석을 달아 “意”를 중시하였으며, 이어지는 “朱雀”에 대해서는 “朱雀은 心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意의 主가 되는 것이라 의심스럽다”하여 “意의 主로서” 心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두 경우는 모두 “水, 火, 土의 작용에 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희가 생각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5. 맺음말

煉丹과 관련하여 주희가 『주역참동계고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는 煉丹과 易理의 핵심은 京房易에서 말하는 納甲說에 불과한 것”이며, “신기한 丹이라는 것도 몸안의 陰陽, 곧 정기의 신묘한 작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연단에서 말하는 “신묘한 음양의 조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心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같은 주희의 태도는 이상현상까지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전체적인 사상체계에 포함시키려 했으며, 많은 것을 心과 관련되어 풀고자 했던 것은 그의 일관된 작업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곤경의 어려움을 달래고자 손을 대었던, 어려운 『주역참동계』의 수수께끼를, 심혈을 기울여 풀어낸, 주희의 최종답은 바로 이 점이었다. 즉, 자신

37) 위와 같은 곳.

38) 『考異』 17b쪽.

39) 『考異』 18a쪽.

의 통일된 사상체계 내에 『주역참동계』를, 달리 말하면 丹을, 위치지은 것이다. 아
니, 『주역참동계』와 丹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체계의 올바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僞學으로 몰린 주희의 학문의 정당성이 매우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丹과 丹經에서
까지 확인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이 『주역참동계고이』가 아닐까.